

당서초등학교

2학년 5반

이름: 박유민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맑음

제목: 홍대에 갔다.

오후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홍대에 갔다. 지하철을 타자마자  
배가 고파다. 그래서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말했다. 홍대에도  
착해서 봤던거야 내가 저번에  
가족과 다같이 갔던 곳이었다.  
'홍대' 갔더니 사람도 많았고  
뉴우 건물도 많았다. 나도 커서  
조용한 학교를 가고 싶다. 그  
그리고 나서 떡볶이 집에 들어가서  
우동, 떡볶이, 튀김을 배부르게 먹어서  
배가 고프다. 홍대는 길거리에서 마  
켓도 있고 노래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림 그려주는 사람도 있었다.  
구경을 하다보니 길을 잘 몰라서  
내가 길을 가르쳐줘서 1. 엄마가  
미로찾기를 하는 걸 알았다. 다음에  
길을 잘알아서 홍대에 가겠다.